

“봄철 김치 나눔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전해요”

전주시 미래페이퍼, 정성껏 담근 김치 동산동 경로당 11개소에 두루마리 휴지와 함께 전달

‘잘 풀리는 집’으로 잘 알려진 전주의 (주)미래페이퍼가 봄철을 맞아 전주시 동산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주)미래페이퍼 임직원 35명은 4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이 열무김치 400kg를 담가 동산동 지역 경로당 11곳에 직접 담근 김치와 자사 생산품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함께 전달했다.

나눔활동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위탁된 기금으로 미래페이퍼 직원들이 참여하게 됐다.

특히 봄김치 나눔 봉사는 지난 해 담근 김장김치가 떨어질 시기인 봄에 어르신들에게 밀반찬을 지원하기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변재영 (주)미래페이퍼 대표는 “풍족하진 않지만 직원들과 뜻깊은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정성껏 담근 김치와 자사 생필품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의옥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 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미래페이퍼 임직원 35명은 4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일이 열무김치 400kg를 담가 동산동 지역 경로당 11곳에 직접 담근 김치와 자사 생산품인 두루마리 화장지를 함께 전달했다.

전북대학교 유학생지원센터, 유학생 교류 벗꽃 기행

전북대학교 유학생지원센터가 지난 3일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동물원 벗꽃 기행에 나섰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타지에서 겪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유학생 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전북대에 재학중인 40여 명의 유학생들과 국제협력부와 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벗꽃이 만개한 교내 캠퍼스와 동물원까지의 길을 함께 걷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유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 간의 교류활동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유학생지원센터를 만들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농어촌공 징집지사, 식목일 행사 ·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한국농어촌공사 징집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제 72회 식목일을 맞아 4일 징집지소성면 보화리 대성마을(이장 유종호)에서 마을회관 주변에 철쭉 및 황금촉매나무 등을 심어 ‘식목일행사 및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실시했다.

유종호 이장은 항상 농업인을 위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사업으로 업무가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마을을 찾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행사를 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완산구 지적부서·건축부서, 협업 통해 건축물대장 169건 지번 정비

완산구에서는 지적부서(민원봉사실)와 건축부서(건축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토지대장 외전필지와 건축물대장 33천건을 약 4개월 간 집중 조사해 공공데이터인 건축물대장 중 정비가 가능한 169건에 대해 관련 공부의 지번을 일치시켰다고 4일 밝혔다.

토지대장의 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을 신청해야 하나 이 경우 건물현황 측량 등의 비용이 발생,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다. 그러나 이번 지적부서와 건축부서의 협업을 통해 건축주의 재정적인 부담과 별도의 신청없이 건축물대장의 지번 일치화를 추진하게 됐다.

구 지적부서와 건축부서는 “앞으로 정례적인 업무공유와 상호협업을 통해 토지대장의 분할·합병 등으로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익산4.4만세운동 기념행사…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기려

전북서부보훈지청의 후원과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전영철)가 주관하는 익산4.4만세운동 기념행사가 4일 오전 10시에 익산 남부시장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익산 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 만세운동 유공자 후손, 진경여고, 성일고, 황등중 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 퍼포먼스에 이어 현화, 축사, 유족인사, 만세삼창으로 익산 4.4만세운동의 거룩한 정신과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전북 지역의 성공적인 만세운동으로 기록된 4.4만세운동이 우리고장 익산에서 일어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순창경찰, 실종아동 예방 위한 찾아가는 사전등록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여성청소년계는 4월을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집중 기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지역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안전 Dream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거나 직접 경찰서 또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 등록하면 된다.

이 날 여성청소년계는 썩지·복흥면 등 원거리에 있어, 경찰서 방문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어린이집 등에 직접 찾아가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시행하였다.



/순창=이왕희기자

김제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오투아일랜드 사우나 독거 어르신 무료 목욕 '사랑의 뽕송뽕송 목욕데이' 협약

김제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투아일랜드 사우나와 지난 3일 신풍동 독거 어르신을 위한 무료 목욕 쿠폰 사업인 '사랑의 뽕송뽕송 목욕데이' 협약을 가졌다.

오투아일랜드 사우나는 최신 시설을 갖춘 깨끗한 목욕 시설로 많은 김제 시민들이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도 목욕을 하지 못하고 사시는 소외 이웃을 위해 흔쾌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각 마을 홀로 어르신 12명이 매주 무료 쿠폰으로 오투아일랜드에서 육체적·정신적인 피로감을 말끔히 씻어내는 사업이며, 신풍동 지사협 위원 2명이 매주 목욕 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임정영 신풍동장은 “목욕 소중 가시는 것처럼 어르신 모두 화사하게 함박웃음을 짓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했고,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해 주신 오투아일랜드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남원시 도봉동 노인요양시설 재능기부 봉사

남원시 도봉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사랑방 재능기부 봉사단은 4일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와 함께 남원행복의 집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흥겨운 풍물소리와 시끌벅적한 목소리로 활기를 불어넣었다.

2014년 12월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한 도봉동 재능기부봉사단은 회를 거듭할수록 색소폰, 풍채춤 등의 더욱 다양한 공연과 관내 단체와 연계하여 함께 봉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치사랑방 운영에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문강현 자치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남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